고 하는 것이 末尾에 오고 있읍니다. 결국 儒敎 敎人이라고 하는 사람은 으레이 그렇다고 하고, 基督敎中에도 舊敎인 天主敎가 相當히 高點數인 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일입니다. 佛敎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높은데, 이것은 天主敎가 아직도 相當히 그 保守性을 띈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길 지 알 길이 없읍니다. 다만 기독교 개신교는 相當히 開化에 앞장섰던 宗敎로 알려져 있는 데도 無宗敎人과는 別 差異가 없으나 이것도 앞으로 더 硏究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끝으로 여기서 提示한 資料는 어디까지나 豫備調査의 段階를 벗어나지 못한 것기 때문에 最終的인 것이 못 될 뿐 아니라 그 標本選擇드 前述한 바와 같이 이 確率 표집이 아닌 까닭에 一般性을 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로 몇가지 示唆를 얻었다고 보고 그것을 要約해 볼때 첫째 人間關係面에서 교과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家族關係에서 國家 社會로 關心과 焦點이 擴大되어 간다는 點이요, 둘째는 權威主義的인 데서 平等主義的인 人道主義로 關心의 焦點이 옮아 간다는것입니다.

다음 態度尺度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아직 儒敎的 規範價値가 確固히 適用되는 分野는 특히 長幼 老少關係와 敎育의 重視等이고, 그러나 敎育이란 것이 반드시 儒敎의 思想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一般的으로 敎育을 重視하는 風潮때문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알 길이 없고 단지 態度尺度의 discriminatory power란 辨別力으로 볼 때, 敎育이 가장 낮았읍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一般的으로 點數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高點數 集團과 低點數 集團과의 差異가 別로 크지 않았다 하는 뜻은 一般的으로 사람이 敎育을 重要視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儒敎的影響이냐는 문제시 되겠읍니다. 따라서 이 項目은 다음에 最終尺度에서는 除外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態度面에서는 權威主義나 禮儀보다 人道主義나 人格修養에로 그 重點이 옮아가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다음 世代別 都市·農村別로 뚜렷한 差異가 있고, 또 하나의 儒敎 價値觀의 崩壞相을 이것을 通하여 豫測케 하여 줍니다. 男女別로 보면 女子가 男子보다 더 保守的이라는 常識을 뒷 받침 해주고, 收入別로는 中流가 가장 保守的이라는 말이 되며, 宗敎別로는 天主敎와 佛敎가 新敎나 無宗敎에 비해 더 保守的입니다.

지금까지의 硏究는 極히 初步的인 段階에 不過함으로 앞으로 이 方面에 標本과 集中的인 內容을 가지고 길이 있는 硏究가 있어 지기를 希望할 따름입니다.

「東亞日報」와 「每日申報」의 比較

李 萬 甲

價値觀의 硏究라는 問題에서 「東亞日報」와 「每日申報」가 왜 問題視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疑訝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른지도 모르겠읍니다. 이 新

聞에 對해서 研究하게 된 動機는 앞서 朴鍾鴻敎授나 金璟東先生께서 言及하신 바와 같이 現在 우리의 價値觀이 상당히 混亂狀態에 있다. 우리의 새로운 價値觀은 과연 어떻게 形成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國民 全體의 關心事가 되어 있는 이즈음에 있어서, 이 問題를 特히 學問的으로 다루어 볼 때는 이것은 過去의 價値觀과 關係되고 過去의 價値觀이 새로운 社會의 變動에 따라서 무너지게 되고 또 새로운 價値觀이 形成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우리의 過去의 價値觀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것인가? 現代化하는 過程에서 價値觀이 무너지는 자국이라고 할까, 그 推移가 新聞紙上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해서 1896年에 獨立新聞이 나온것을 始作으로 해서 解放에 이르기 까지의 新聞紙上에 나타난 價値觀들을 分析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 研究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發表하는 것은 그 中의 一部로써 本來는 東亞日報, 每日申報 以外에 朝鮮日報도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朝鮮日報는 그 保存品이 完全히 남아있지 않아서 할 수 없이 東亞日報와 每日申報만 다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時期는 1929년에서 1940년 12년 사이에 걸쳐 있는데 그 以前것도 했읍니다마는 東亞日報가 아직 完全히 끝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時期的으로 가장 激動하는 時期인 1929年에서 40年에 이르는 期間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時代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게되면 1929年부터 1933年 美國에서는 커다란 經濟恐慌이 持續되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打開하느라고 루즈벨트가 New Deal政策을 내걸고서 大統領으로 立候補해서 當選되었읍니다. 그 以後에도 世界的인 恐慌이 繼續되었던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다음, 1931年에는 所謂 滿洲事變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滿洲에 駐屯해 있던 日本軍隊가 거기서 武力行動을 取해 가지고서 以後 약 2年, 이 戰爭이 繼續된 後 滿洲國이라는 것이 樹立 되었읍니다. 1935年에는 伊太利가 에티오피아를 侵攻하고 그 조금 前에는 나치스가 오스트리아를 侵攻해서 併合하고, 그 以前엔 나치스가 政權을 잡아 國家의 權力을 쥐고 獨裁를 하게 된 時期였읍니다. 그 다음에 1936年 2月 26日에는 日本에서 軍閥—젊은 장교—들이 일어서 政治人이라든가, 資本家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 反對하고 좀 더 파시스트的인 政策을 쓰기 爲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읍니다. 1937年에는 北에서 中日戰爭이 일어났고 이 戰爭이 주욱 繼續해서 다음에 第二次世界大戰에 들어간 것입니다.

1940年 까지의 新聞을 보게 된 것은 東亞日報가 그때 完全히 廢刊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時期까지 比較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였읍니다. 東亞日報는 대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繼續되고 있는 新聞이며, 每日申報는 新聞社는 完全히 다르지만 지금의 서울新聞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當時의 每日申報의 書類 等은 아직도 서울新聞社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읍니다.).

每日申報는 日政때 機關紙였읍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타난 主張이라든가 態度, 價値觀 같은 것은 서로 相當히 다른 점이 있읍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제 簡單히 살펴보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第6表를 보면 東亞日報의 內容에 어떤 것이 실려있는가 하는 것을 表示한 것인데 全體的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民族經濟를 어떻게 向上시켜 보아야 하겠다는 얘기 입니다.

이 民族經濟의 向上이라고 할 때 民族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後에 다시 말씀 드리겠읍니다만, 그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拘束된 사람에게 좀 人道主義的인 立場에서 自由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人權을 擁護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이 民族文化의 向上, 한 열편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別로 많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侵略主義에 對해서 同調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東亞日報로서는 좀 困難하겠읍니다만, 中日戰爭이 일어나고 조금 있다가 1936年에 孫基禎 選手가 여기서 日章旗를 달고 갔는데 東亞日報에서 그것을 뭉개고 揭載했다고 해서 停刊을 당했읍니다. 근 1, 2年에 가까운 時期를 停刊당했는데 이때부터 中國과의 戰爭도 벌어지고 해서 當局의 壓力이 세어질 때 입니다. 그래서 日本의 戰爭行爲라고 할까, 軍事行爲에 對해서 차츰 同調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아홉편이나 되어있읍니다.

그 다음이 前近代的인 要素의 타파, 그리고 軍閥主義에 對해서 同調한 것인데 이것도 侵略主義에 對해서 同調한 것과 같은 理由에서 입니다. 그 다음이 反侵略主義인데 이것은 初期, 初期보다도 마지막 한 4, 5年 以前에 日本이라든가 그 밖의 다른 強大國의 侵略主義에 강경하게 反對하는 論說들이 많이 실리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初期에 심하고 時日이 흐를수록 조금씩 弱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더구나 中間에 몇번씩 停刊을 당했는데, 停刊 당한 뒤에는 그 主張이 상당히 弱化된 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平等問題라는 것도 民族을 單位로 해서의 平等問題입니다. 그리고 日本의 政治情勢, 혹은 合理的인 思考方式으로 行動해야 한다든가, 혹은 科學을 崇尙해야 한다든가 하는 等의 主張이 많이 실리고 있읍니다. 이것을 表를 보게되면, 題目만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理解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東亞日報 論說의 基本的인 觀點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역시 韓國民族이 日本의 侵略을 받아 가지고서 그 植民地 밑에서 헤매이고 있다, 苦生하고 있다, 하는 觀念이 아주 뿌리깊이 박혀서 거기서 부터 모든 論說이 나오는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마다 民族, 民族 하는 單語가 使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表面的으로 民族의 自主, 獨立 等을 말하지는 못 했읍니다. 그것은 日本의 總督府政治 밑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허락 되어 있는 範圍內에

서 最大限의 抵抗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抵抗은 조금 度數가 지나치게 되면 總督府에 依해서 彈壓을 받아 가지고 그만 둔다든가 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中에도 特히 韓國民族이 日本의 壓制下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할때 東亞日報에서는 역시 韓國民族이 經濟的으로 搾取를 當하고 있다는 것에 對해서 상당히 뼈저리게 느끼고 그 中에서도 農民, 特히 零細 小作人들이 甚하게 搾取當하고 있는 것에 對해서 상당히 強하게 그 利益을 擁護하려고 하는 論說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勞動者라는 것도 調査한 社說안에는 몇개인가 言及이 있었는데 거의 大部分이 勞動者보다는 農民에 對한 이야기이고 農民中에서도 가난한 農民, 그 다음에 많은 것이 漁民, 그리고 조금 더 擴大되어서 一般 庶民層까지 걸치고 있읍니다.

經濟的인 搾取에 對해서는 두가지 對象에 對해서 攻擊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總督府의 政策에 關한 것 或은 日本政府 全體의 政策에 關한 것입니다. 가령 그 當時에 採金을 한다는 政策이 결국 韓國民에게 커다란 被害가 올 것이고 特히 壓迫을 받고 있는 大衆에게 커다란 混亂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누누히 強調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強調하고 있는 것은 水利組合 問題하고 京電 (지금은 韓電)의 두개에 對해서 또 상당히 많은 量의 論說을 쓰고 있읍니다. 水利組合이라는 것은 完全히 日本 사람을 爲한 水利組合이지 韓國사람을 爲한 것은 아니고 더구나 小作人을 爲한 水利組合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水利組合을 없애야 된다. 水利組合뿐 아니라 論說 도처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組合이라도 全部 때려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農民은 全部 脫退하고 協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山林組合도 그렇고, 혹은 畜産組合도 그렇고, 도대체 그러한 組合이 있을 必要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必要가 있는 組合은 오직 協同組合 하나뿐이다. 農民 相互間에 利益을 도모하기 爲한 協同組合 하나만이 必要하지 딴 組合이라는 것은 一切 日本의 侵略에 對해서, 搾取에 對해서 奉仕하는 것이 된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京電에 對해서는 이것이 市民의 公共的인 目的에 使用될 것인데 왜 一個 會社가 私私로이 그것을 利用해가지고서 미싸게 받아먹고 돈이 흘러 들어 가느냐? 하는 論說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크게 볼때 역시 韓國사람의 입장으로서는 京電 攻擊하는 것이 가장 아픈 하는 점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府民館, 지금 國會議事堂이란 것도 京電에서 지어 주었다고 하는데 市民을 爲해서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攻擊이 심하니까 그것을 감투라쥐 시키기 爲한 措處라고 봅니다. 이런類의 이야기는 제가 몇번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역시 京電에 對한 攻擊은, 비단 韓國의 經濟的 搾取의 유형기관이 京電이 아닐 텐데도 유

난히 京電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攻擊을 加하고 있읍니다.

세째번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民權을 어떻게 培材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읍니다만, 思想犯에 對해서 많이 言及하고 있는데, 警察이 있을 必要가 없다는 式으로 主張하고 있읍니다. 왜 總督府는 警察을 維持하기 爲해 豫算을 많이 搾取해 가지고선 養成하고 있느냐? 그 보다는 司法府를 強化해 가지고서 裁判을 좀 더 公正하게 하여야 한다는 式으로 어떻게든지 警察權의 힘을 弱化시키려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과 關聯되어서 自由를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思想犯에 對해서의 自由, 思想의 自由, 이런 것을 強調하고 있읍니다. 또 어떤 것을 보게되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即 日本에서 反共을 하기 爲해서 國際的인 條約을 맺고 있는데, 이렇게 共產黨을 혹은 共產主義를 막기 爲해서 國際的인 條約을 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다. 思想이라는 것은 自由로 맡기게 되면, 그대로 解決되게 된다. 나쁜 思想이라면 그대로 없어질 것이고 좋은 思想이라고 한다면 條約을 맺었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立場을 取하고 있읍니다.

以後에도 잠간 말씀 드리겠읍니다만, 全般的으로 볼 때, 東亞日報는 日本이 하는 것, 日本이 힘이 弱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다는 立場입니다. 그리고 韓國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必要한 것이라는 立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論說 全體를 通해서 본다면 서로 좀 撞着이 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例컨대 人口問題도 거기 나오고 있는데, 人口가 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人口가 너무 많아서 困難하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몇가지 여하튼 서로 撞着되는 것을 發見하게 됩니다. 終에 또 前 近代的인 論說을 다룰때, 잠깐 이야기 되겠읍니다마는, 全體的인 一貫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이 發見됩니다.

그 다음에 強調되고 있는 것이 역시 民族觀念입니다 마는, 民族觀念 이라는 것은 論說 거의 도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特定의 것만 民族觀念을 鼓吹한 것으로 말 할 수는 없읍니다만, 그것이 民族觀念, 그 自體를 鼓吹하기 爲해서 내세운 論說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서의 民族觀念이란 것은 결국 同胞愛를 가지자, 그 當時에 滿洲에서 韓國사람이 中國사람에게 攻擊을 받아 가지고서 萬寶山事件이 일어나 被害를 입게 되었는데, 이러도 中國에 가 있는 韓國사람에게 援助를 해 주자, 이런 얘기를 상당히 強調하고 있읍니다. 혹은 國內에서 가난한 韓國사람이 시달리고 있는 것에 對해서 同胞愛를 發揮하여야 된다는것을 상당히 強調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韓國사람 全體가 조금이라도 團結하지 못하고 分裂을 일으킨데 對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와 하고 있읍니다. 反面에 團結이 되어있게 되면 그것을 아주 기뻐하고 讚揚하는 論說이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가령 그 當時에 天道敎가 分裂을 일으켰다가 統合된 일이 있는데, 그 統

合된 것에 對해서 아주 讚揚하는 論說을 싣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韓國民族은 如何튼 團結해야 한다는 主張을 도처에서 強調하고 있읍니다.

敎育에 關해서는 義務敎育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왜 日本사람, 日本아이들에 對해서만 敎育을 시키고 韓國 사람들에게는 敎育을 시키지 않고 있느냐? 너희들이 稅金으로 걷어 올리는 돈이 얼마인데, 거기서 日本사람만 敎育을 시키고 韓國사람은 안 시킨다는 것이 異常하지 않느냐? 또 그 當時에 京城帝大라는 것이 있읍니다만, 여기에도 日本사람이 가는 率하고 韓國사람이 가는 率이 상당히 差가 나고 또 韓國사람은 해마다 더 줄어드니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것을 상당히 強調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모두 民族的인 觀點에서 말하고 있읍니다. 敎育도 日本사람이 제대로 안 시켜주니까 私立學校, 私學이라는 것을 發展시켜야 된다. 結局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敎育을 하여야지 別 도리가 없다는 것을 몇군데서 強調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國際情勢, 特히 中國에 對해서 상당히 觀心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역시 日本으로 부터 우리가 獨立을 한다든가 하는 말은 전혀 없읍니다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게 되면 역시 中國의 情勢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當時에 中國에는 軍閥들이 割據해서 統一이 안 되었읍니다만 統一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까와 하고 統一되어서, 中國이 잘 되어가지고서 어떻게 日本의 힘을 거기서 몰아내어 가지고서, 그것이 韓國에 까지 미치면 좋겠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內容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다분히 드는 論說을 싣고 있읍니다. 그리고 萬寶山事件같은 경우에도 中國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읍니다. 後에 말씀드릴 每日申報에는 中國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상당히 強調해서 말하고 있는데 東亞日報에는 中國사람이 못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中國에 가 있는 韓國사람도 좀 反省해야 된다, 韓國사람도 나쁘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中國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살아야 한다. 힘을 合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거기서 상당히 強調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韓國사람이 滿洲에 가는 것을 상당히 奬勵하고 있읍니다. 韓國사람은 滿洲에 가야 한다. 어렵겠지만 거기서 살도록 해야 한다. 거기가 새로운 開拓地다. 이런 것을 強調하고 있읍니다. 中國사람과 韓國사람과의 어떤 紐帶를 그대로 維持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時代的인 面에 對해서는 앞서도 말 했읍니다만, 처음에 強하게 나왔다가 그만 停刊을 當하게 되면, 다음에는 民族的인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서 日本의 極東에 있어서의 侵略政策이라는 것이 더 露骨化 됨에 따라서 東亞日報의 論說의 힘이 점점 弱해 집니다. 自己 自體가 弱해지면서 부터 韓國民族은 希望을 잃어서는 안 된다든가, 그렇지만 우리는 惰落하여서는 안 된

다든가 하는 主張을 하고 있읍니다. 그때 아마 韓國社會에는 그런 氣運이 무척 強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結局 東亞日報 自體도 廢刊 當하면서 더 存續을 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以上이 東亞日報의 一般的인 性格이고 다음으로 每日申報에 對하여 본다면 表2에 나와 있읍니다만, 여기서 強調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韓國사람은 日本사람 밑에서만 살 수 있다는 얘기, 日本의 侵略政策, 日本의 植民地政策이 아주 完全히 옳다는 얘기입니다. 侵略이니 植民地니 하는 말은 절대로 使用하지 않습니다만, 日本사람들이 쓰는 말 「一視同人」이니, 「內鮮一體」같은 말이 도처에 나오고 하여튼 韓國사람하고 日本사람하고 合쳐서 日本사람 밑에서 그 좋은 政治 받아서 깨어야 되고 그 밑에서만 이라야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時代的으로 본다면 初期에는 그것이 그렇게 甚하지 않았읍니다. 단지 우리는 經濟的으로 發展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經濟的으로 發展해야겠다는 것은 日本사람 自體를 爲한 理由에서인 것이 다분히 있읍니다. 植民地로서의 經濟, 가령 日本의 勢力이 滿洲 혹은 北支에 浸透해 들어가는데 그 軍倉基地로서의 韓國의 經濟的인 役割 等을 상당히 強調해서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가다가 또 初期에는 韓國사람에게도 投票權 等 自治權을 주어야 한다는 論說이 거기 나와 있는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다가 그런 것이 하나 나왔읍니다만, 그것이 滿洲事變이 벌어져 가지고서 中日戰爭까지 가는 동안에 그런 얘기는 점점 없어지고 도 經濟的인 論說이 많다가, 다음에는 日本의 軍國主義戰爭政策 혹은 膨脹主義 이런것을 支持하는 論說이 壓倒的으로 많아집니다. 이 表의 제일 첫번을 보면 알 수 있읍니다만, 初期엔 侵略主義 혹은 帝國主義라고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것에 對해서는 많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나중에 갈수록 이것이 상당히 露骨化되어지고, 強해져서 거의 每日같이 그런 內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以外의 다른 問題에 對해서는 別로 問題삼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바 처럼 東亞日報에는 상당히 variety가 많은데 每日申報에서 主張하는 것은 거의 日本政策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論說만이 壓倒的으로 많습니다.

다음에 이 新聞社說에서 前近代的인 價値觀念에 對해서 어떠한 攻擊을 加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過去 價値觀念에 對해서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重要한 關心事가 아닐 수 없읍니다마는, 거기서 찾아 본다면, 우리의 前近代的 價値觀念이라는 것이 ——人間關係에서 본다면—— 家族主義를 바탕으로한 三綱五倫이 아마 제일 基本的인 것이겠읍니다.

東亞日報에서 찾아 본다면 前近代的인 價値觀에 對해서 얼마간 말하고 있지만 全般的으로 보아서 新聞社說에서 前近代的인 價値觀에 對해서 關心을 表示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民族으로서 日本이 나쁘다는 것과, 民族

으로서 日本밑에 살아야 된다는 두개의 論說인데 거기에 關聯되어서 모든 論說이 나가있으므로, 따라서 前近代的인 價値觀念 等에 對해서 反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많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거기 나타나 있는 것으로 추려보면 東亞日報에는 壓倒的으로 男女關係의 問題가 言及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독립신문에서 본다면 거기서는 三剛五倫중에 나쁘다고 한 것은 男女의 差別, 그것 하나만 指摘하고 있고, 다른 것은 거의 없읍니다. 孝의 方式이 나쁘다는 것은몇 군데 있었던 제가 읽은 바 있읍니다만, 意識的으로, 計劃的으로 이것은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은 打破해야 한다 하는 等의 뚜렷이 目標를 세우고 論說에서 攻擊하고 있는 것은 男女平等權의 主張, 特히 女子에게 敎育을 받을, 그런 權利를 주어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독립신문을 보면 年末에 정洞에서 基督敎靑年들이 모여서 討論한 일이 記事에 실려 있읍니다. 그때의 主題目이 女子에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주자 하는 데마 였읍니다. 그 當時에 反對討論으로서는 尹致昊氏가 나와 女子에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주는 것은 당치 않다. 尹致昊氏는 女子가 무슨 敎育이 必要하냐 빨래나 하고 밥이나 짓고 옷이나 꾸미고, 아이나 낳고 기르면 되는 것이지 孔子, 孟子가 언지찍고, 입술에 뭐 칠하고 했다는 소린 못 들었다 하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읍니다. 女子가 할 役割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尹致昊氏 같은 사람이 그런 思想을 가졌다는 것은 참 疑訝하게 생각했읍니다만 그렇게 읽은 記憶이 있읍니다. 허지만 大部分의 演士들이 女子에게도 敎育은 받을 權利를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깨어야 할텐데 훌륭한 젊은이가 나와야만 이나라가 잘되고 獨立을 튼튼하게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길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이를 맡아서 가르치는 女子로서 두엇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初期에서 부터 男女平等權을 主張하는 傾向은 韓國에서는 상당히 強했다고 생각 합니다만, 이것 東亞日報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女子에게 같은 權利를 주자, 女子의 社會的 地位의 向上, 女子의 敎育, 이런 問題에 關해서는 상당히 많이 言及되어 있읍니다. 論說의 大部分이 그런 問題를 다루고 있고 다른 問題에서도 그에 對한 言及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읍니다. 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女子의 새로운 地位와 役割을 말하고 있는 것이 5개 나와 있읍니다. 또 한가지 早婚을 反對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읍니다. 그 다음엔 寡婦가 再婚해도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大體로 보아 男女의 自由로운 接觸이 必要하다는 것입니다.

每日申報에서는 女子에게 權利를 주는 것을 상당히 反對하고 있읍니다만, 東亞日報에서는 男女의 自由로운 交際에 對하여 比較的 樂觀的 입니다. 自由롭게 交際를 하게 되면 性關係가 좀 紊亂해질른지 모르나, 그건 一時的인 問題고 그 다음엔 나아진다. 걱정할 것 없다는 式의 主張입니다. 그리고는 女

子가 도처에 進出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強調하고 있읍니다. 언젠가 한번 家庭婦人들이 運動大會를 열었던 모양인데, 이것을 社說에 取扱해서 지금까지 女子가 家庭에 갇혀 있어서 形便이 없었는데 나와서 뛰는 것을 보니까 이젠 되었다는 느낌을 적기도 했읍니다. 그래서 女學校에서 女學生들이 運動하는 것도 상당히 좋게 쓰고 있는 點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長幼有序의 批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날에 쓴 것인데 長幼有序의 나쁜 儒敎的인 觀念을 버리고 아이는 自由스럽게 길러야 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家族制度에 對해서도 全般的으로 東亞日報는 女子의 立場을 올리는 方向이고 比較的 좀 더 自由를 주어야 한다는 方向입니다.

그런데 孝에 關해서는 거의 言及이 없읍니다. 孝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도 없고 孝를 지켜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없고……. 단지 이런 句節은 있읍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서로 사이가 나쁜데 이것은 나쁠 수 밖에 없으니까, 이 때는 따로 살아야 된다는 主張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그 時代엔 勇敢한 發言이었겠으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恭敬해야 된다는 얘기가 強調되어 있지않고 따로 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大家族制度를 아주 反對하고 小家族制度를 取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 大家族制度가 나쁘다는 것은 新年初의 新年辭에도 뚜렷이 나타나 있는데 그 內容은 첫번째가 農民을 爲해서 일해야 된다. 農民을 깨이게 하고 農民의 經濟的인 發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번은 大家族制度에서 우리가 脫皮해야 한다는 것, 세번째는 國際情勢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읍니다. 이렇게 大家族制度를 絕對反對하면서도, 약간 矛盾이 되는 것은 同姓同本사이의 結婚을 反對하고 있는 것입니다. 當時의 新聞을 보게되면, 總督府에서 세가지의 法案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女子가 財産을 相續할 수 있는 權利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同姓同本의 結婚을 할 수 있다든가, 혹은 女子가 男子를 取養해서 自己집의 家門을 繼承할 수 있게끔 하는 法案을 作成 했는데 거기에 對해서 東亞日報는 絕對反對였읍니다. 왜 反對냐 하면 이것은 遺傳學的인 立場에서도 反對다. 科學的으로 같은 핏줄에서 나온 親族이 서로 結合하는 것이 나쁘다. 그 理由때문에 안되지만 또 하나의 重要한 問題는 우리의 氏族制度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氏族制度라는 것이 家族制度와 밀접히 關聯되었는데, 氏族制度도 지키자는 立場에서 日本의 同姓同本의 結婚을 許容하겠다는 法案에 反對하고 있읍니다.

全般的으로 볼때, 前近代的인 價値觀念에 對해서는 男女平等에 關한 問題에 對해서 상당히 進步的입니다.

그런데 每日申報는 어떤 立場인가 하면, 前近代的인 價値觀에 對해서 言及하고 있는 것은 네 편 밖에 없는 程度입니다. 거기서도 두개는 女子를 全的으

로 拘束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가령 一例로써 總督府의 法案에 男子에게 姦通을 하게 되면 處罰해야 된다는 法案을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었는데, 每日申報에서는 이것을 社說에 取扱해서 안된다고 했읍니다. 男子가 왜 姦通했다고 해서 處罰을 받느냐? 女子가 받을 것이지 男子가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女子를 男子와 같이 取扱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男女平等權은 좋다. 그러나 왜 男女平等權이 이런데 까지 適用되어야 하느냐? 女子는 家庭안에서 지켜야된다. 女子의 貞操는 神聖하다. 하지만 男子는 社會活動을 하는데 가다가 失手하는 것 等을 일일히 全部 다 處罰하면 困難하지 않느냐?」 하는 式의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도 女子의 地位를 向上한다든가 하는 것에 對해서는 全的으로 反對하고 있읍니다. 女子는 家庭안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 女子를 爲해서도 좋다는 立場입니다.

그 다음이 孝에 對한 얘기인데 이것도 日本의 侵略政策을 그대로 儒敎를 使用해서 말하고 있읍니다. 어떤 論說이 있는가 하면 南山에 그 當時 朝鮮神宮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朝鮮神宮에 가서 祭祀를 지내게 되면 總督부터 나가서 祭祀를 지내게 되는데 이에 關해서 그 社說이 덧있읍니다. 여기에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을 使用하여서 집에 있어서는 孝를 해야하고 나라를 爲해서는 나라의 祖上에 對해서 모두 정성들여 恭敬해야 할 것이 아니냐? 祖祭, 祖上에 對한 祭祀라는 것도 그것은 한 고을에 있는 神에 對한 祭祀와 關聯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나라의 神에 對한 것과 關聯된다. 우리의 孝와, 國家의 神에 對해서 祭祀를 지내는 마음이란 다 通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日本의 朝鮮神宮에 祭祀지내는 것에 對해서, 우리의 家族制度에 立脚한 祖祭에 關聯시켜서 이 朝鮮神宮에 祭祀지내는 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읍니다.

또하나 다른 하나의 論文에는 儒學에 關한 얘기가 실려있읍니다. 그 當時의 總督에 우원(우가끼)이라는 사람이 있었읍니다만, 그 사람이 成均館에 祭祀때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演說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에 對해서 每日申報는 新聞社說에 써서 儒學을 活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儒學을 活用해야 하는가 하면 國民道義를 昂揚하고 日本의 侵略政策에 맞는, 그러한 封建的인 思想을 그대로 지키고, 國家秩序를 維持하기 爲해서 思想을 善導하고…… 이런 意味에서 儒敎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儒敎가 이것을 지키는 바탕인데 말만 해서는 안된다. 實踐을 해야 한다는 主張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때, 結論的으로 말씀드린다면 結局 日政時代의 우리나라 新聞이라는 것이 단지 日本의 侵略下에 있었다하는 點에서 民族的으로만 覺醒하고 民族的인 面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했지, 民族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

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에 對해서의 어떤 體係的인 思想, 이런것을 가지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적어도 東亞日報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이 그렇게 뚜렷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처럼 우리 民族이 시달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억울한 일이 아니냐?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一切의 觀念밑에서 日本의 그 當時 政治하는 것, 그밖에 韓國사람이 하는 것만 보아서 안타깝게 여기고, 혹은 기쁘게 여겨서 이것을 대개 社說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이 느꼈읍니다. 그러면서 前近代的인 價値觀에 對해서, 過去의 價値觀念에 對해서는 거의 反省이 크지 않고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은 男女問題 程度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價値觀念이라는 것은 男女問題를 除外하고는 時代가 달라짐에 따라서 徐徐히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그 價値觀念이 무너졌지 實際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어떤 思想의 背景이 있고 스스로 thinking해 가지고 主張했던 點은 없지 않았는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調査라는 것은 아직도 分析 도중에 있는 것이고 상당한 難點이 있읍니다만, 대체로의 傾向을 알기 爲해서 이렇게 해보고 있읍니다. 以上 여러분의 參考에 이바지 된다면 感謝하겠읍니다.

都市와 農村의 價値觀의 比較

高 永 復

먼저 朴鍾鴻 선생님께서 價値觀의 變遷은 構造的인 差와 密接한 關聯이 있을 것이라는 暗示的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價値觀이 具體的으로 어떤 差가 있다면 그 差를 가져 오게 하는 가장 根本的인 要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보려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價値觀의 문제를 둘러 싸고 보통 態度 調査를 通해서 그 價値觀의 所在를 짐작하는 方式을 擇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價値와 態度라고 하는 것 自體를 좀 더 檢討해 볼 만한 餘地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價値라고 하는 것과 態度라고 하는 것과는 分離하여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價値는 具體的으로 態度속에서 直接的으로 表現되는 것이라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러한 一連의 問題도 여기서 어느 程度 解決의 실마리를 얻어 보려고 하는 意味도 包含되어 있읍니다마는, 우선 제가 調査한 結果를 簡單하게 紹介해 드리면서 이 두가지 問題를 여기서 對答드려 볼까 합니다.

昨年에 우리가 都市와 農村人의 社會的인 態度가 어떤가? 나아가서는 韓國人의 이데올로기를 近代化시키려며는 어떤 面을 가장 치중해서 생각해야 되겠